소식지 2008-06호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월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로 전달되는 ☎129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희망의 전화 129

Contents

1 상담반 소개 1
건강생활상담반 소개 – 박순금 (건강생활상담반, 파트장)

2 따뜻한 이야기 3
이성주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3
김정선 (복지서비스상담반, 상담원) 5

3 이달의 특집 : 조류독감(AI) 6

4 체험수기 9
상담원 춘계체련행사 – 박온자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김상섭 (복지서비스상담반, 상담원)

5 희망봉사대 14
이강숙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6 글솜씨 15
유원영 (소득보장상담반, 파트장)

7 Q & A 16

8 세상밖으로 18

9 129 동정 19

10 홍보만화 20

1 129 상담반 소개

보건복지콜센터 건강생활상담반 소개

박 순 금
건강생활상담반 파트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건강생활상담반이 함께합니다.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 학대 · 자살상담, 보건의료 및 복지 · 가족정책분야의 모든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상담전화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내용에 따라 건강생활상담반, 소득보장상담반, 복지서비스상담반, 긴급지원상담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부신 6월을 맞이하여 항상 성심껏 상담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건강생활상담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명칭에서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보건의료시책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된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 주요 상담 분야는 금연사업, 국민영양사업,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 치료비 지원,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 노인보건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입니다.

상담 내용이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그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고 해당 법령 또한 복잡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 마음을 담은 친절과 성실한 노력에 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신속 · 정확하게 상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내 전화를 수행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상 필요한 설문조사를 해당 사업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함으로 정책 개발과 시행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총인원은 22명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두루 겸비한 건강보험 및 보험급여 전문상담원 2명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18명의 일반상담원, 상담반의 교육 및 상담업무지원을 맡고 있는 임은주 부파트장 그리고 상담반의 상담품질과 인사, 복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파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상담반원 모두는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친절성,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개발하여 믿음직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반원이 되도록 경주할 것입니다.

▷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 의료기관 등의 이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혜택, 각종 보건의료시책,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원하시는 정보가 있거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건강생활상담반' 을 기억하세요.

※ 건강생활상담반의 주요상담 BEST 10 [08년 5월 기준]

1위.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상담	16,573건
2위. 건강보험 자격 · 부과 · 급여기준 · 보험평가관련 상담	1,640건
3위.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정책 상담	1,441건
4위.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기관개설 등 보건의료정책관련 상담	1,193건
5위.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의료분쟁관련 상담	1,140건
6위. 보건의료인 면허 발급 및 재교부 관련 상담	1,002건
7위. 건강검진,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등 관련 상담	766건
8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전염병 관련 상담	735건
9위. 이 ·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구강정책 관련 상담	520건
10위. 국가조기암검진사업 및 암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상담	515건

우리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보건복지콜센터 건강생활상담반의 희망을 나누는 상담은 계속 됩니다~.

2 129 따뜻한 이야기

우리 모두의 몫

이 성 주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어느 날 오전, 젊은 남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상으로는 아직 대학생 정도라고 느껴져서 처음에는 혹시 수업이나 논문관련으로 질문이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사회복지 공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일이 간혹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뭔가 좀 더 절박한 목소리로, 조금은 공격적인 말투로 시작하시더군요. 애써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아니고 고모님의 일이셨습니다.

고모께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생하시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없어지고, 홀로 남겨지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민원인이 더 속이 상하고 화가 났었던 것은 고모가 그동안 공공근로 등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와 구청의 직원들이 고모가 일자리 신청하거나 하면 그 부분만 상담을 해줄 뿐 생활이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알아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모께서 점점 건강이 안좋아져서 더 이상 간단한 일도 하기 어려워지시고 공공근로도 장기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생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용기를 내서 지자체로 문의를 하셨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 민원인을 더 속상하게 하셨겠지요.

고모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도 말씀도 못하시는 분으로, 용기내서 문의했는데 좀 안좋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셨는지 많이 속상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많이 화가 나신 상태이기도 했고, 상황을 들어보니 꼭 안된다라고 결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해말씀을 드린 후 담당자와 상담해 보실 수 있도록 관련 동주민센터로 연락을 드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이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의견전달이 잘 안되셨던 것 같았습니다. 조카분도 전화줄때 고모님이 좀 상황이 안좋으니 본인에게 직접 연락달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동주민센터로 연락해보니 담당자분께서 흔쾌히 연락드려보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민원인께 다시 연락드리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고맙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전화를 했더라도 안되는 분이면 안되실텐데 평안한 목소리로 응대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충분히 말씀은 나누어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도 그 문의를 받는 지자체 분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도안내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민원인에게 모두 설명하기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제도안내를 해주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차도 모를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민원인도, 지자체도, 상담을 하는 우리로서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따스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조카분이 있다는 것이 많이 감명깊었습니다. 요즘같이 부모자녀간에도 서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고모일에 이렇게 같이 속상해하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분이 아직 계시다는 것에 화가 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아직은 주위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살만한 세상인가 봅니다. 이 따스함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앞으로는 우리 모두의 몫이겠지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김 정 선
복지서비스상담반 상담원

얼마 전 한 남자분이 힘겨운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좋죠”

“평소 간이 좋지 않은데 내가 쓰러져서 있으니 누가 병원에다가 옮겨 놓았더군요.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한지 5일되었습니다. 3일은 응급실에 있었고, 지금은 일반병실에... 그런데 병원비가 50여만원 넘게 나와서 링겔을 꽂은 상태에서 환자복을 입고 도망을 나왔어요.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생계비를 받고 생활하는데, 생계비를 병원비에 다 주고나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별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남자분의 목소리는 자포자기한 듯 한 목소리였다.

“마누라는 살기 싫다고 가출해서 이혼했다.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그 남자분의 말이 가슴을 누르는 듯 한 무엇가가 말문을 막아 버려서 순간 나도 모르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을 다잡고 위로의 말과 함께 긴급지원사업안내하고 상담을 마쳤다.

나의 위로가 그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민원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던 중 나에게도 겸손하게 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혹 멀리 있는 행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건강한 몸이 있고, 새로이 맞이할 수 있는 내일이 있고, 곁에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고, 부담 없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의 행복이 조금이나마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란다.

3

129 이달의 특집

조류독감 (AI)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조류인플루엔자(AI)는 무엇입니까?

○ 흔히 조류독감으로 불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고병원성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기가 사람과 전혀 다른 종인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highly species-specific)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나요?

○ 주로 오염된 먼지 · 물 ·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 차량 · 기구 및 장비 · 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는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 이론상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08년 04월 현재 총 382명이 감염되고 241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감염된 사람들은 주로 발생농장의 농장종사자 등 감염된 조류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로서, 조리된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9개 농장,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5N1감염이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 2008년 4월부터 8개 시·도 34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5N1가 확인되었지만 (2008.05.07 기준)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AI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발병 전 7일 이내에 조류와 접촉한 사실(단순히 지나가거나 구경한 경우는 제외되며 AI에 감염된 조류와 1M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실 경우,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근 AI 발생이 확인된 광진구 인근의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AI 감염위험은 없을까요?

○ AI는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일반적인 대기속에 AI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AI의 주요 전파경로는 감염된 가금류와 사람의 친밀한 접촉이며 발생장소와 1km이상 떨어진 어린이대공원에서의 감염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AI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AI발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AI 발생한 농장(사육장)에서 조류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습니다. AI 감염위험은 없을까요?

○ 아직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단계라 AI 바이러스와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조류와 사람간의 친밀한 접촉을 통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 AI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조류와 접촉한 사실(단순히 지나가거나 구경한 경우는 제외되며 AI에 감염된 조류와 1M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건소에 사실을 알려주시고 10일간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집 근처에 비둘기 등 조류가 많이 살고 있으며,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까요?

○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AI에 저항성이 강하여 쉽게 감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둘기로 인하여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분변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원체가 서식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둘기와 접촉하는 것은 건강상 좋지 않아 가능한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 ·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 ·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어린이대공원 등 단지 AI가 발생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AI발생이 확인되는 등 감염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물원 체험학습실, 학교의 사육실, 또는 야생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가능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팀 (02)380-2690~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4 129 체험수기

박 온 자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단체 체력단련 행사를 다녀와서

토요일의 산행은, "휴식 = 늦잠 + tv시청" 이라는 개념을 가진 나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신록의 계절이라는 봄은 뭔지 모를 설렘을 일으켰고,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집합장소로 향했다. 평소 회사에서는 업무관계로만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다가, 회사를 벗어난 환경에서 만나자 왠지 모두들 다른 사람인듯 밝은 미소가 얼굴을 떠나지 않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관악산의 연주암!!!

산행의 기본자세로 연주암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연주암은 677년(문무왕 17)에 의상(義湘:652~702)이 창건한 절이다. 의상은 관악산 연주봉 절벽 위에 의상대를 세우고 그 아래 골짜기에 절을 짓고 관악사(冠岳寺)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이후부터 고려 말까지는 거의 폐사되다시피 하다가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는 조선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200일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연주암을 끼고 0.5km의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인 연주대가 나온다.

연주대는 이성계가 무악대사의 권유로 의상대 자리에 석축을 쌓고 30㎡ 정도의 대를 구축하여 그 위에다 암자를 지은 것이다. 1411년(태종 11), 동생인 충녕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전국을 떠돌던 양녕과 효령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관악사를 현위치로 옮기고 연주대의 이름을 따서 연주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위치를 바꾼 이유는 관악사의 원래 위치에서는 왕궁이 바로 내려다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금의 설렘은 발걸음을 가뿐하게 했고, 모두가 같이 입은 분홍색 상의 위로 따듯한 햇빛과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9시경부터 드디어 출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싱그러운 흙냄새와 살랑대는 나뭇잎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첫 소풍을 나온 유치원생처럼 즐거워졌다.

우리가 선택한 경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연주암, 연주대로 이어지는 코스로 유난히 돌계단이 많은 경로이다. 특히나 연주암에서 연주대로의 경우 정상에 가까운 곳이 모두 바위계단이나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행이 처음인 몇몇 동료들은 시작부터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날씨 맑은 봄날, 여름의 문턱에서 산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가벼운 차림의 중, 고등학생들과 등산복을 갖추고 동반에 오르는 일행들과 섞여서 온 산이 다채로웠다. 최근에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계곡엔 물기하나 없는 바위만이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서, 모처럼 계곡에 시원한 물소리를 기대했던 우리는 시원한 약수로 대신 갈증을 채워야 했다.

중간 중간 마련된 휴식의자와 자연스럽게 평평해진 바위가 힘든 우리의 휴식을 받아주고, 돌들이 채워진 계단사이에는 썩지 않은 낙엽이 덮힌 흙들이 발목의 충격을 덜어주면서 점점 우리는 정상으로 향했다. 10시를 넘어서자 햇살이 강해지고, 가쁜 호흡과 이마에는 땀이 몽글몽글 솟았다.

10시 40분 즈음해서 나와 일행은 연주암에 도착했다.

이미 올라온 사람들이 연주대로 향하거나, 암자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서로의 목적으로 흩어지며 붉어진 얼굴과 흐르는 땀을 식히고 있었다.

화창한 날씨에 탁 트인 하늘과 그 아래로 펼쳐진 서울대캠퍼스의 전경과 인근의 풍경이 역시나 산에 오르는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

녹아가는 얼음물로 갈증을 채우고 잠시 경치를 구경하다가, 우리는 절을 둘러본다는 명목 하에 좀 더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일행을 보면서 우리도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이미 오랜만의 운동에 무거워진 다리를 재촉해서 연주대로 향하는 길을 올랐다.

산에 오면 욕심이 없어진다는데, 모자란 중생은 정상에 가고픈 욕심과는 상관없는 말인 것 같다. 이 욕심의 대가로 이틀 동안 내 다리는 외출을 거부했다.

어쨌든, 정상 연주대의 커다란 바위는 이미 삼삼오오 전망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이미 만원이었고, 기념촬영과 아이스크림 장사로 고즈넉함은 이미 사라졌지만, 정상에 부는 한줄기 바람과 바위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보이는 하늘 배경으로 위치한 연주대를 보는 순간 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12시가 넘어, 입구의 식당에서 한 그릇의 보리밥을 비비며 허기진 배를 다 채우고, 일부 아쉬움이 남은 일행은 시원한 탁주 한 사발로 3시간의 피로를 모두 날려 보내며 환한 얼굴로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를 지었다.

시원한 탁주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은 우리 일행으로 그날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여담을 나누느라 조금은 시끄럽게 만들었고, 주말 오후 내내 뭉친 근육으로 방콕여행을 하며 마무리 했지만, 자연 속에 동화되었던 그 경험은 정말 상쾌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산, 사람이 좋다

김 상 섭
복지서비스상담반 상담원

5월 17일 오늘은 토요일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지만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 서둘러야 한다. 바로 보건복지콜센터 체육대회(등산)를 가기로 한날이다. 직장이 집에서 가깝다 보니 오늘 같은 날은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야만 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관악산...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하는 관악산의 코스는 최종목적지를 연주암으로 정하고 있었다. 좀 서둘렀던지 과천청사에 도착하자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산에 딱 올라가기 좋은 정도의 날씨와 멀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자 한명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모두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등산을 준비하는 상담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는 즐거워 보였다. 올라가기 전 하나하나 나눠주는 등산용 비상식량... 간단하게 등산을 하며 즐길수 있는 초콜릿과 사탕등을 나눠어 주었다.

역시 산을 오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산에 오를 수 있는 건 등산의 또 하나의 즐거움일 것이다. 근 1년간은 산을 올라본 적이 없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시간이 나도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지만 그동안 무언가 잊고 지낸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본다. 산을 오른다는 건 평소 일상생활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나의 몸들에 하루쯤 맑고 신선한 공기와 스스로 만들어내는 땀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거친 숨을 내쉬며 바위와 바위를 짧은 다리의 유연하지 못한 보폭을 옮기며 힘들게 오르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오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있지? 무엇 때문에 계속 일하고 무얼 위해서 있는걸까? 라는 대학교 교양 철학 시간에나 생각해 볼만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힘겹게 산을 오른다.

그러다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그곳이 이산의 정상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한순간에 멈출 수 있는 곳.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 뒤돌아 내려다본 그 풍경에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을 모두 없앨만한 그곳이 산의 정상이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산 아래의 풍경은 평온하고 정적이고 작은 것들이 옹기종기 아름다워 보인다. 올라온 길이 힘들었지만 그보다 정상에서의 희열이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했다.

올라온 길이 그나마 외롭지 않고 덜 힘들었던 것은 오늘 같이 올라와준 보건복지콜센터의 직원들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 정확한 상담과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달래 주어야하는 상담원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로 언제나 공부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상황 상황을 파악하여 상담해 나가는 상담원의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동료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그곳에 일이 힘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어 덜 힘들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즐거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산과 사람이 좋아지는 5월의 즐거운 산행으로 보건복지콜센터에도 봄을 느낄 수 있었다.

5

129 희망봉사대

안양시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다녀와서

이 강 숙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원

부족함이 많은 인간임을 확인한 하루

5월의 봉사활동기관이 안양시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쪽지에 이번 봉사활동에는 꼭 참석하리라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 다행히 뜨거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나로선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점도 있었기 때문이며 장애인 복지관이란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와 홍보를 맡은 선생님의 자상한 안내를 듣고 보니 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일반 여성복지관이나 청소년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복지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 '희망의 전화 129'에 대한 소개시간을 가졌다.

우리 129 희망봉사대의 활동취지 - 봉사활동, 현장체험을 통한 상담의 질 제고, 보건복지콜센터 홍보 등-를 소개하고나서 갖고 온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우리 콜센터의 설립취지와 현황 및 활동 상황 등을 소상하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복지관 담당자분께서 우리 콜센터에 대한 관심이 유난한 바람에 원없이 우리 콜센터를 알릴 수 있었으며, 덕분에 우리 콜센터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노라는 확답까지 얻어 낼 수 있었다.

안양시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란 명칭답게 직업재활센타, 주간보호센타, 보호작업시설, 치료센타로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곳은 복지관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부업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다. 몇 개의 모둠에서 주어진 작업, 예를 들면 인형 옷을 입힌다거나. 장난감에 부속을 하나 조립하는 작업들이었고, 나름대로

이곳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일한 대가에 대해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처음으로 장애인들과 접하는 시간이었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장애인들과 인사정도 나누고 간단한 작업 후에 점심시간이 되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나눔의 가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순환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수익금으로 장학금도 지원한다고 한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활동정도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시설에서 만든, 허브비누와 빵도 있었고 직원과 주민들이 기증한 많은 물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리들은 점심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복지관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몇 개의 허브비누와 하루에 두 번 구워 나온다는 빵을 구입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더 구입했다.

오후에는 주간보호센타에서 중증의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의 반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전화로만 중증의 장애 1-3급이란 말만 들었는데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중에는 사지가 뒤틀리고 근육이 강직되어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 밥도 앉아서 먹지 못하여 유모차에서 간식을 먹는 아이도 있었다. 마침 간식시간이어서 아이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한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속으로는 낳을 때부터 손발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낸 부모들의 인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하는 생각도 들었다. 토지의 박경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산문집에 “글을 쓰는 행위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 누구의 입장에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주간보호센타장님은 장애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매만져 주어도 아이가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만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자극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잠시 머문 시간 동안 내가 한 봉사보다는 내가 얻어간 내용들이 많아서인지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어지럽고 한 일에 비해서는 다소 피곤했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임을 느낀 하루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다. 참여했던 봉사활동이 복지관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2008년 5월
129 희망봉사대 봉사활동

지적 장애우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센터장님께 "희망의전화 129"홍보

주간보호 장애아동 놀이프로그램 케어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애아동 식사도우미

6 129 글솜씨

추천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윤혜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얼싸안고
기뻐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 감상평

유 원 영
소득보장상담반 파트장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한다. 우리가 살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러운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들은 또 얼마나 있었던가. 서로 얼싸안을 만큼 기뻤던 적은 또.....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다.

바로 가족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많은 날이 가족간 서로를 기념하듯 자리하고 있기에 더 더욱 이 시가 떠오른다.

대학 합격소식을 듣고 자식보다 더 좋아 눈물 흘리시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 친구처럼 지내던 형제가 입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얼싸안고 기뻐하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기쁘고 멋진 일이 없더라도 혹은 힘겨운 얼굴을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는 가족이 그 자리 그 곳에 있기에 우리의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퇴근 후 가장 사랑하는 당신만의 가족에게 이 시를 읽어주라!

내가 기쁨이 되고, 그들이 눈물이 되어 함께 얼싸안는 '우리' 라는 울타리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자인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7

129 Q & A

Q&A

Q : 형편도 어렵고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입원 중인데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외국인근로자 · 노숙인 등 소외계층의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ㅇ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ㅇ 지원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대해 지원하되, 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무료진료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전국 59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

Q. 4살된 딸이 지적 장애 2급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아이를 낮시간 동안 돌봐 주는 곳이 있나요? 무료시설을 문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A.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3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가 각각 1인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위치등 연락처는 중앙보육정보센터(http://www.educare.or.kr/) 싸이트를 이용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시설의 사정에 따라 바로 보육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06년 5월 10일에 심장장애 2급으로 등록했습니다.
장애등록할 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받았었는데, 지금 재판정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애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진단비용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최초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이나 의무적 재판정(정신.심장.장루.간질장애)을 받을 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의무적 재판정 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006.5.10일에 장애 등록하여 현재 재판정 대상자라면 최초 진단에 준해서 장애진단비용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40,000원, 그외 장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진단결과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장애등록 진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장애등록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등록진단비 중 검사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Q.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과, 부득이 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가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이때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2년을 연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만 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5가지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만 6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하여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8 129 세상밖으로

희망의 전화 129가 소개된 언론보도

☎ 연수구, 129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강화 (KBN 대한방송, '08.4.30)

☎ 아동학대 가해자 81%가 '부모' (연합뉴스, '08.4.30)

☎ 농아인 협회, 공공기관의 편의기기 설치촉구 (함께 걸음, '08.4.30)

☎ 긴급상황땐 '129' 누르세요 (시민일보, '08.4.30)

☎ 연기군, 현장중심 복지행정 앞장 (에이블뉴스, '08.5.7)

☎ 기초노령연금 신청 1주일 연장- 16일까지 (국정브리핑, '08.5.8)

☎ 청복단지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국정브리핑, 대전시티저널, '08.5.8)

☎ 〈한국인의 질병〉 불임수술 지원받으려면 (서울신문, '08.5.12)

☎ 부천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편다" (연합뉴스, '08.5.14)

☎ 방송, 만화책 등 오프라인 매체도 선정성 심각 (국정브리핑, '08.5.15)

☎ 고양시, 위기가정에 긴급보조금 지원(뉴시스, '08.5.18)

☎ 노인장기요요양보험 대국민 협조문 발표(국정브리핑, '08.5.18)

☎ 청주시, 위기사황 제소득세대 긴급복지지원 올해 69세대 6천6백37만원지원 (뉴시스, 환경일보, '08.5.19)

☎ 저소득층 긴급복지제도 대상 확대 (국정브리핑외 다수, '08.5.19)

☎ 긴급구조 청소년 79.3%, 일탈, 비행문제 (데이터뉴스, '08.5.21)

☎ 자연장제도등 개정 장사제도 26일 전면 시행(국정브리핑외 다수, '08.5.22)

☎ '129 희망봉사대' 장애인 이용시설 봉사활동 펼쳐 (메디컬투데이외 다수, '08.5.22)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 질 좋아졌다 (국정브리핑, '08.5.22)

☎ 약국당번제 있으나마나, '심야. 공휴일에 약국찾아 삼만리' (세계뉴스. '08.5.26)

9 129 동정

상담원 교육

1일 고객체험활동

- 일 시 : '08.5.7(수)~5.9(금)(3일간)
- 내 용 : 상담원이 가상고객으로 상담체험후 소감 및 설문지 작성
- 분 야(예시)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교육

- 일 시 : '08.5.21(수) 15:00~17:00
- 강 사 : 이예원 주무관(요양보험운영과)

장사법 관련교육

- 일 시 : 일시 : '08.5.23(금) 16:00~18:00
- 강 사 : 고덕기 사무관 (노인지원과)

우수 상담원

BEST 상담원

이강숙 (소득보장상담반)
김정선 (복지서비스상담반)
권효주 (건강생활상담반)
이정혜 (긴급지원상담반)

129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박미정 (소득보장상담반)
상담시간 최장 - 송지나 (소득보장상담반)

JUMP UP

권성희 (소득보장상담반)
이정례 (복지서비스상담반)
박수연 (건강생활상담반)
김경희 (긴급지원상담반)

10

129 홍보만화

희망의 전화 129
나이수(nice@chwapic.com)
자, 오늘은 각종 신고 전화번호에 대해 수업하겠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을 말하도록 해요~.
먼저, 범죄신고 전화번호는 뭘까요~?
네! 112입니다!
네~잘했어요~. 그럼 119는 어떤 번호죠~?
넵! 위험한일에 처하거나 화재신고를 할때 입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입니다. 노인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로 하죠~?
.....
음...그럼, 다음 질문.
푸드뱅크, 위기 가정상담 노인 치매 상담 전화번호 아는사람~?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테니 이 기회에 외웁시다.
아동학대신고, 노인학대신고... 워기가정상담...자살상담.. 음..잠깐만...
뒤적
보건 복지
전화 번호
헉-!! 보건 복지관련 전화번호가 너무 많잖아!!!

선생님!
그 많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외워요!?
너무 많아요~
에..그건...
선생님!!
벌떡
아!
토미
학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문제를 알고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통합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면 경제적 지원부터
노인.장애인복지혜택,
보건의료제도,
학대, 자살등
긴급지원까지
희망의 전화
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대요.
기존의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가
129로
통합되었답니다.
그렇구나~
그럼, 희망의 전화 129
하나만 기억하면
보건복지 정보및
긴급복지지원 상담서비스가
한번에 가능하네~^-^
기억하세요! 희망의 전화 129
하하
하하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는

- 소득보장에서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일선 행정기관, 민간 상담기관, 다른 정부부처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결해 드립니다.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저희가 365일 24시간 여러분 가까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이용방법은

운영방식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평일 09 : 00~18 : 00
긴급지원 상담 :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여러분은 시내 통화요금만 부담하시고,
시내통화권역 초과 요금은 저희(콜센터)가 부담합니다.

상담분야와 내용은

분야	상담 내용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주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사상자, 가족사업 등
복지서비스	인구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 법인, 푸드뱅크, 사회복지사제도, 보육 등
건강생활	금연, 영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암 환자 지원, 예방접종, 정신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제도, 노인복지, 장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야간 · 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